

◆ Special Characteristics and New Application of the Oriental and Occidental Author Natation Tables

東西著者記號表의 특징과 그의 새 사용법에 대하여 (上)

李 載 喆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차 례

- 一. 서언
- 二. 각표의 특징과 표의 택일
- 三. 기호 매기는 법
 - 가. 기호의 조작
 - 나. 기본기호의 구성
 - 다. 부차적기호의 구성
 - 라. 별치기호
- 四. 청구기호의 배열법
- 五. 기호 매김의 別法
 - 가. 자모 한자에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방식
 - 나. 숫자만에 의해 기호화하는 방식
- 六. 맷 는 말

一. 서언

1970년 10월에 필자는 1958년판의 필자의 「동서저자기호표」를 개정한 제3표, 제4표, 제5표 및 제6표를 교재용 등사물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¹⁾ 동표중의 제3표와 제5표는, 목록의 배열에서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요, 제4표와 제6표는 이를 별개의 단음(자모)시해서 「가까나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을 위해 만든 것인데, 그후 필자는 계속해서 제7표와 제8표를 더 만들어 이에 추가시켰다. 마지막의 제7·8표는 된소리를 별개의 단음(자모)시해 되어 그 자모의 배열위치를 전체 예사소리자음이 다 끝난 다음에 잡는 즉 ㄱ ㄴ ㄷ ㅌ ㅂ ㅍ ㅅ ㅈ ㅎ 다음에 놓는 이른바 「가하까순」 배열법을 위한 것이다.

한편 필자는 필자의 새표를 발표하고 난 다음, 필자표의 구조원리에 관해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논문제목들은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²⁾,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³⁾ 및 “한글자모의 생기빈도와 숫자에 의한 그

의 분석적 합성식기호화에 대하여”⁴⁾란 것이다. 이번의 이글은 필자의 「東西著者記號表」의 각표가 갖는 특징에 대한 논급과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다.

각 표의 특징과 사용법의 이해에는 자주 표의 대조가 필요하기기에, 먼저 각표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하고 다음 章부터 본론에 들어가기로 한다.

<제 1 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1 ㄱ ㅋ ㅋ	1 ㅏ
2 ㄴ ㄹ	2 ㅑ(ㅑ ㅒ)
3 ㄷ ㅌ	3 ㅓ(ㅓ ㅕ)
4 ㅁ	4 ㅗ(ㅗ ㅕ)
5 ㅂ ㅍ ㅃ	5 ㅜ(ㅘ ㅙ)
6 ㅅ ㅆ	6 ㅡ
7 ㅇ	7 ㅜ(ㅠ ㅖ ㅠ)
8 ㅈ ㅉ	8 -(ㅓ)
9 ㅎ	9 ㅣ

<제 2 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1 ㄱ ㄲ	1 ㅏ
21 ㄴ	2 ㅑ(ㅑ ㅒ)
22 ㄷ ㅌ	3 ㅓ(ㅓ ㅕ)
23 ㄹ	4 ㅗ(ㅗ ㅕ)
3 ㅁ	5 ㅜ(ㅘ ㅙ)
4 ㅂ ㅍ ㅃ	6 ㅘ(ㅘ ㅙ ㅚ)
5 ㅅ ㅆ	7 ㅜ(ㅠ ㅖ ㅠ)
6 ㅇ	8 -(ㅓ)
7 ㅈ ㅉ	9 ㅣ
81 ㅊ	
82 ㅋ	
83 ㅌ	
84 ㅍ	
9 ㅎ	

1) 이제철, 동서저자기호표(東西著者記號表), 서울, 연세대학교도서관학과, 1970. 4장.

2) —,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 圖書館學, 第1輯(1970年12月), p.1—58.

3) —,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삼기 문제에 대하여”人文科學(延大), 第24·25合併輯(1971年5月), p.221—245.

4) —, “한글자모의 생기빈도와 숫자에 의한 그의 분석적 합성식 기호화에 대하여”, 人文科學(延大), 第27輯 또는 28輯에 발표예정.

〈제 3 표〉(실용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ㄱㄷ초에 붙을 경우는 제외	ㅊ에 붙는 모음기호
ㄱㅋ 1	ㅏ 1	ㅏ 1	ㅏ 1
ㄴ 19	ㅐ 2	ㅐ 2	ㅓ 2
ㄷㄸ 2	ㅓ 3	ㅓ 3	ㅗ 3
ㄹ 29	ㅕ 4	ㅕ 4	ㅜ 4
ㅁ 3	ㅗ 5	ㅗ 5	ㅡ 5
ㅂㅃ 4	ㅏ 6	ㅜ 6	ㅣ 6
ㅅㅆ 5	ㅓ 7	ㅡ 7	ㅅ 7
ㅇ 6	ㅡ 8	ㅣ 8	ㅎ 8
ㅈㅉ 7	ㅣ 9		ㅈ 7
ㅊ 8			ㅊ 8
ㅋ 87			ㅋ 87
ㅌ 88			ㅌ 88
ㅍ 89			ㅍ 89
ㅎ 9			ㅎ 9

〈제 5 표〉(아이디얼형 가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ㅊ에 붙는 모음기호	
		ㅊ다음에 붙을 경우는 제외	모음기호
ㄱㅋ 1	ㅏ 2	ㅏ 2	ㅏ 2
ㄴ 19	ㅐ 3	ㅐ 3	ㅓ 3
ㄷㄸ 2	ㅓ 4	ㅓ 4	ㅗ 4
ㄹ 29	ㅕ 5	ㅕ 5	ㅜ 5
ㅁ 3	ㅗ 6	ㅗ 6	ㅡ 6
ㅂㅃ 4	ㅓ 7	ㅓ 7	ㅡ 7
ㅅㅆ 5	ㅏ 8	ㅏ 8	ㅣ 8
ㅇ 6			ㅎ 6
ㅈㅉ 7			ㅈ 7
ㅊ 8			ㅊ 8
ㅋ 87			ㅋ 87
ㅌ 88			ㅌ 88
ㅍ 89			ㅍ 89
ㅎ 9			ㅎ 9

〈제 4 표〉(실용형 까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ㄱㄷ초에 붙을 경우는 제외	ㅊ에 붙는 모음기호
ㄱ 1	ㅏ 1	ㅏ 1	ㅏ 1
ㄲ 18			
ㄴ 19	ㅐ 2	ㅐ 2	ㅓ 2
ㄷ 2			
ㄸ 28	ㅓ 3	ㅓ 3	ㅗ 3
ㄹ 29			
ㅁ 3	ㅕ 4	ㅕ 4	ㅜ 4
ㅂ 4			
ㅃ 49	ㅗ 5	ㅜ 5	ㅡ 5
ㅅ 5			
ㅆ 59	ㅓ 6	ㅡ 6	ㅣ 6
ㅇ 6			
ㅈ 7	ㅓ 7	ㅣ 7	
ㅉ 79			
ㅊ 8	ㅡ 8		
ㅋ 87			
ㅌ 88	ㅣ 9		
ㅍ 89			
ㅎ 9			

〈제 6 표〉(아이디얼형 까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ㄱㄷ에 붙는 모음기호	
		ㄱㄷ초에 붙을 경우는 제외	모음기호
ㄱ 1	ㅏ 2	ㅏ 2	ㅏ 2
ㄲ 18			
ㄴ 19	ㅐ 3	ㅓ 3	ㅓ 3
ㄷ 2			
ㄸ 28	ㅓ 4	ㅗ 4	ㅗ 4
ㄹ 29			
ㅁ 3	ㅕ 5	ㅗ 5	ㅜ 5
ㅂ 4			
ㅃ 49	ㅜ 6	ㅡ 6	ㅡ 6
ㅅ 5			
ㅆ 59	ㅓ 7	ㅡ 7	ㅣ 7
ㅇ 6			
ㅈ 7			
ㅉ 79			
ㅊ 8			
ㅋ 87			
ㅌ 88			
ㅍ 89			
ㅎ 9			

〈제 7 표〉(실용형 하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그 다음에 붙는 모음기호	그 뒤에 붙는 모음기호
그 다음에 붙는 모음기호에 붙을 경우는 제외			
ㄱ 1	ㅏ 1	ㅓ 1	ㅗ 1
ㄴ 19			
ㄷ 2	ㅐ 2	ㅔ 2	ㅜ 2
ㄹ 29			
ㅁ 3	ㅓ 3	ㅓ 3	ㅗ 3
ㅂ 4			
ㅅ 5	ㅓ 4	ㅓ 4	ㅜ 4
ㅇ 6			
ㅈ 7	ㅗ 5	ㅗ 5	ㅣ 5
ㅊ 76			
ㅋ 77	ㅏ 6	ㅓ 6	ㅜ 6
ㅌ 78			
ㅍ 79	ㅜ 7	ㅡ 7	
ㅎ 8			
ㄲ 9	ㅡ 8	ㅣ 8	
ㄸ 96			
ㅃ 97	ㅣ 9		
ㅆ 98			
ㅉ 99			

〈제 8 표〉(아이디얼형 하표)

자음기호	모음기호	그 뒤에 붙는 모음기호
그 뒤에 붙는 모음기호에 붙을 경우는 제외		
ㄱ 1	ㅏ 2	ㅓ 2
ㄴ 19		
ㄷ 2	ㅐ 3	ㅓ 3
ㄹ 29		
ㅁ 3	ㅓ 4	ㅗ 4
ㅂ 4		
ㅅ 5	ㅗ 5	ㅣ 5
ㅇ 6		
ㅈ 7	ㅜ 6	
ㅊ 76		
ㅋ 77	ㅡ 7	
ㅌ 78		
ㅍ 79	ㅣ 8	
ㅎ 8		
ㄲ 9		
ㄸ 96		
ㅃ 97		
ㅆ 98		
ㅉ 99		

二. 각표의 특징과 표의 택일

필자의 「東西著者記號表」를 채용키로 한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제1표부터 제8표까지의 표중에서 자기 도서관의 目錄排列法과 整理工程 등의 특성에 맞는 어느 한 표를 택일하여 자기 도서관용으로 확정짓는 일이다.

제2표는 제1표의 개정표이며, 제3표부터 제8표까지의 표는 각각 제2표를 개정한 독립된 표이다. 따라서 현재의 필자표 입장에서는 제1표와 제2표는 폐기된 셈이 된다. 그러나 제1표 또는 제2표를 이왕부터 써내려 오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새표로 전환하지 말고 종전의 표를 계속 유지하여 주기 바란다. 그나름대로의 순차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1표는 類音式記號法 (soundex coding)⁵⁾의 원리에 합치되는 기호법이다. 동표에 의한 기호화는 현행의 자모순 배열을 기하기 어려운 단점도 지니고 있으나, [k] [p] [t] [tʃ] 음을 갖는 외래어에 대해 어느 방식의 韓字法에 따라도 둘째이후의 경우는 한자리에서 겹색될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⁶⁾ 예를 들어 "Starlin"에 대해 "스탈린" "스탈린" "스탈린", "サトウ"에 대해 "사토오" "사또오" "사도오"의 표기중 어느 표기법에 따라도 상관 없이 같은 기호하에서 찾아지는 좋은 점이 있다. [k] [p] [t] [tʃ]의 한글화의 다양에 따른 겹색방식의 다양을 극복하기 위하여 「ㄱ ㄱ ㅋ」, 「ㄷ ㄷ ㅌ」, 「ㅂ ㅂ ㅍ」, 「ㅈ ㅈ ㅊ」을 기입어의 첫자부터 각각 동일시해서 배열한 사전의 예로 裴亮瑞박사의 「韓國外來語辭典」의 배열법이 있다.⁷⁾ 따라서 목록배열에서 그 외래어사전과 같은 한글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이 있다면 필자의 제1표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2표는, 제1표가 [k] [p] [t] [tʃ] 음을 갖는 외래어의 표기방식의 다양에서 오는 겹색방식의 다양화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행의 일반배열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의 일반화된 배열법에 맞추어 시정한 것이다. 이 제2표는, 제3표이후의 표와는 달리, 모음기호표가 단 한벌 밖에 없고, 자음기호도 그것이 두자리 숫자기호를 갖는 것일 경우, 그 두자리 기호를 1부터 배정해나갔기 때문에 (예 : ㄴ은 21, ㄷ은 22, ㄹ은 23; ㅊ은 81, ㅋ은 82, ㅌ은 83, ㅍ은 84), 助記性면에서는 그의 개정표인 제3표이하의 어느 표보다도 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제2표는 자음과 모음의 합성한 결과 24부터 29까지와, 85부터 89까지의 숫자기호를 영영 유휴번호로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ㄷ"과 "ㅊ"이

5) Charles P. Bourne, Methods of Information Handling, New York, Wiley, 1963, p.48—49.

6) 이재철, "동서저자기호법의 연구", 도협월보, 1958년 7·8月號, p.9.

7) 裴亮瑞, 韓國外來語辭典, 서울, 宣明文化社, 1970. 다만 동사전의 배열법에서 필자의 제1표의 배열순위와 다른 점은 필자 표에선 "ㄹ"을 "ㄴ"과 같이 類音化하여 한 기호를 준데 대하여 동사전에서는 이를 독립시킨 점이다.

두자리의 숫자기호를 가지고 있어 이에 모음기호를 불일 경우 세자리 기호를 갖게 되는 흠이 있다. 제2표의 이들 흠을 기운 것이 제3표이후의 표이다.

제3표이후 제8표까지의 표는, 각각 동등하게, 제2표의 개정표이다. 바꾸어 말하여 제4표가 제3표의 개정표가 아니며, 제5표가 제4표의, 제6표가 제5표의, 제7표가 제6표의, 제8표가 제7표의 개정표가 아니요, 각각 독립적으로 제2표의 개정된 것이다.

제3표이후의 개정표가 제2표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제2표에서의 유휴번호 24부터 29까지를 활용시키기 위하여 자음의 기호배정을 재조정하고, 이에 맞춰 모음 기호표를 제5·8표의 경우 두벌, 제3·4·6·7표의 경우 세벌로 늘인 점이다. 두자리 기호를 가졌던 “ㄷ”과 “ㅊ”이 한자리 기호를 갖게 된 것도 특이한 점의 하나이다. 이로써 전체적인 면에서 제3표이후의 표는 제2표에 비해 7분의 1정도 기호의 길이가 단축되어, 기호의 짧막성 유지면에서 전일보하였다고 믿는 것이다. 다만 개정표는 기호의 짧막성을 더 갖게 된 대신, 모음기호표가 한벌(제 3·4·6·7표는 두벌) 더 늘어 언듯 보기에도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얼마간의 익힘으로 곧 해소될 것이다. 필자는 그의 확인으로, 작년(1971년) 제2학기 延大의 「분류와 목록학」과정에서 동 저자기호표에 대해 강의하고, 일주일 후, 동표중 제5표를 암기해서 적는 문제를 시험문제에 포함시켜 시험을 치르게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33명의 동학반에서 32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틀림도 없는 정답을 내었고, 나머지 한 학생만이 일부의 오답을 내었는데, 그나마도 틀린곳이 두벌의 모음기호표를 가진 모음부가 아니고 자음부의 ㅋㅌㅍ에 대한 세 기호만이었던 것이다.

새로 개정된 제3표부터 제8표까지의 각표간의 차이와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3표, 제4표 및 제7표는, 번호확정의 作業工程에 있어, 주로 표에 의해서만 저자기호를 매기고 서가목록을 들추어 그 항목내의 전후관계를 일일히 참조해가면서 번호를 매기지 않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이표들은 설혹 서가목록 내의 전후관계를 확인해서 번호를 매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기입어)는 다른데 표에 의한 번호는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저자에 그 번호 확보의 기득권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저자가 자모순으로는 앞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번호 추가의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여지는 씨스템을 위한 것이다. 곧 “김장수”에 대해 김71”라 주고 난다음, 같은 항목에 “김자립”的 저작이 들어왔을 경우, 자모순으로는 “김자립”이 “김장수”보다 앞서지마는 부득이 “김자립”에 대해 “김713”이라 매겨 뒤에 놓는 씨스템

을 말하는 것이다. 제3·4·7표를 “실용형”이라 명명한 것은, 이러한 씨스템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모순 배열은 기하기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제5표, 제6표 및 제8표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서가목록내에서 전후관계를 대조하여 끝내 엄밀한 자모순 배열을 기할 수 있는 “아이더얼”한 씨스템이다. 이들 표에 “아이더얼형”이란 명칭이 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앞에서 든 예의 저자기호를 이를 아이더얼형의 씨스템에서는 “김장수”에 대해 “김72”라 매기고, “김자립”에 대해서는 “김715”이라 매겨 먼저 들어온 “김장수”(김72)보다 나중에 들어온 “김자립(김715)을 앞서 놓아 자모순을 유지케 한다.

새로 개정된 6개의 표가 作業工程面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실용형”과 “아이더얼형”으로 양동분 되듯이, 동표들은 排列面에서 「가나다순」과 「가까나순」과 「가하까순」으로 3등분 된다. 여기서 「가나다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여 함께 배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3·5표가 이에 해당되며 “가까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독립된 자모로 보고 이를 별도로 배열하는 「가…꽃, 까…꽃, 나…꽃」의 배열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4·6표가 이에 해당되며, 「가하까순」이라 함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것은 전자와 같되어 이를 예사소리의 전체자모가 다 배열된 다음에 놓는 배열순, 즉 「가…꽃, 까…꽃」순의 배열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제7·8표가 이에 해당된다. 각표의 명칭으로 붙은 「가표」의 명칭은 「가나다순표」를, 「까표」는 「가까나순표」를, 「하표」는 「가하까순표」를 각각 약칭한 말이다.

된소리자음(ㄱㅋㄷㅌㄴㅈㅊㅍㅎ)의 배열은 사전계나 목록계의 배열법이 아직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현상에 비추어, 저자기호표도 이에 대응해서 수종 만들어 놓고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기 도서관에서 채택한 목록카드 배열법과 합치되는 것을 고려 쓰도록 한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필자가 이제까지 발전시킨 제1표부터 제8표까지의 각표는 목록의 배열법과 기호매김의 작업공정에 맞추어 택일해 쓸 수 있도록 한 각각 독립된 표이다. 이하 각표별로 이상에 말한 바 그 특징을 요약해 적기로 한다.

<제1표>

가) 일종의 類音式記號法 (soundex coding)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이다.

나) [k] [p] [t] [tʃ] 음을 갖는 외래어음을, [k]는 ㄱㅋㅋ, [p]는 ㅂㅃㅃ, [t]는 ㄷㅌㅌ, [tʃ]는 ㅊㅊㅊ의 어느 방식으로 번자하여도 상관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점이 있다.

8) 이제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표의 연구”p.46~50(제1장 된소리의 배열 방식을 달리하는데서 야기되는 문제점)

다) 다만 엄격한 의미에서의 혼행의 통용된 가나다순의 배열을 기할 수 없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裴亮瑞박사의 「韓國外來語辭典」의 말수차례와 같은 자모 배열법을 취하는 도서관용으론 최적격의 것이다.

<제 2 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나) 모음기호표가 단별이기 때문에 제3표이하의 어느 표보다도 記號性이 더 있다 하겠다.

다) 그러나 자음과 모음기호의 합성후에도 24~29와 85~89의 두자리 기호의 유휴기호가 생기고 기호의 짤막성을 유지하는데 결함이 있다.

라) 複號化(decoding)면에서 제5·6·8표보다 강하다. 그 이유는 제2표는 제3·4·7표의 실용형표와 마찬가지로, 들어온 순차관계로 엄격한 자모순배열이 깨어지는 경우에도 그에 상관없이 표에 의한 숫자 기호의 값을 끝까지 지키기 때문이다. (三나2.10 참조)

<제 3 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나. 기호매김의 工程에 있어 탁상의 저자기호표에 의해서만 기호를 매기고 별로 서가목록을 참조하여 유일번호를 확정하지 않는 도서관용이다.

설혹 유일번호를 주는 경우에도 저자(기입어)는 다른데 표에 의한 번호가 같을 경우, 먼저 들어온 저자(기입어)가 자모순으로 앞선다 할지라도 번호추가에 의한 개별관계로 부득이 뒤로 놓이는 씨스틈이다(三나2.10 참조)

다) 번호합성의 결과 제2표와 같은 유휴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짤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 4 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가까나순」 배열용이다.

나) 제3표의 “나”항의 설명과 같이 번호매김의 工程을 탁상의 표에 의해서만 그치고, 서가목록을 일일히 확인하여 매기지 않는 도서관용이다. 설혹 서가목록을 확인하여 전후관계를 고려 유일번호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그 저자의 들어온 순차에 따라 반드시 엄격한 자모순배열을 기하기 어려운 씨스틈이다(三나2.10 참조)

다) 번호합성의 결과 제2표와 같은 유휴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짤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 5 표>

가) 된소리를 예사소리와 동일시하는 「가나다순」 배열용이다.

9) Ibid. p.48.

나) 표에 의해 매긴 번호를 가지고 반드시 서가목록에서 동번호이저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전후관계를 참작하여 유일번호를 형성하는 도서관용으로 만든 것이다. 자모순으로 앞서는 저자(기입어)가 설혹 뒤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 완전한 자모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 씨스틈이다. (三나2.10 참조)

다) 대신 이 제5표 및 제6·8표의 아이디얼표들은 複號化면에서 제2표 및 제3·4·7표의 실용형표보다 약간 악한 점이 있다. 그 저자(기입어)가 뒤에 들어왔지만 자모순으로는 전에 들어온 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경우 이 씨스틈에서는 위의 딴 자음기호를 차용하여 매기는 수가 잔혹 있기 때문이다.

라) 제2표와 같은 유휴번호가 생기지 않으며, 제2표보다 번호의 짤막성을 더 유지할 수 있다.

<제 6 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는 「가까나순」 배열용이다.

나) 그 이외의 특징은 제5표와 같다.

<제 7 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되, 그것들을 송다음에 놓는 「가하까순」 배열용이다.

나) 그밖의 특징은 제3·4표와 같다.

<제 8 표>

가) 된소리를 별개의 자모로 보되, 그것들을 송다음에 놓는 「가하까순」 배열용이다.

나) 그밖의 특징은 제5·6표와 같다.

신설도서관 입장에서 상기표중 어느표를 採擇하는 것이 좋으냐고 필자보고 굳이 묻는다면, 필자는 제5표를 推奨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場軍”을 표기할 때 “장군”으로 표기하든 “장꾼”으로 표기하든, 또 “ナカムラ(中村)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 “나가무라”로 표기하든 “나까무라”로 표기하든 관계없이 기호화의 결과가 한자리에 모이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⁹⁾ 두째 “아이디얼형표”에 의한 기호화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음절 단위의 자모순에 부합되는 배열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의 採擇問題는 자기 도서관의 目錄排列政策과 기호매김의 作業工程의 限度 등을 고려하여, 자기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그 도서관자신이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三. 기호 매기는 법

가. 기호의 조작

저자기호는, 韓은 의미에서, 基本記號와 副次的記號로 이루어진다. 基本記號는 표에 의해서 매겨진 기호

(저자—기입어—는 다른데 동일번호가 나왔을 때 이의 개별을 위해 임의로 덧붙인 숫자기호도 포함)를 가르고, 副次的記號는 기본기호만으로 각 저자(기입어)간의 개별화가 안될 경우— 또는 그개별화에 대비해서— 기본기호 다음에 부차적으로 표제(서명), 판차, 권호, 복본의 순차 등에 의하여 좀더 구분해주는 일체의 문자 또는(와) 숫자 등 기호를 가르킨다.

그러나 좀은 의미로 저자기호라 말할 때는 위의 기본기호만을 가르키며, 부차적기호도 일괄적으로 불리우는 수보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요소를 개별적으로 불러 각기 표제기호(또는 서명기호), 판차기호, 권호기호, 복본기호 등과 같이 부르는 수가 더 많다.

나. 기본기호의 구성

1. 기본기호의 대상이 선정

1. 1 저자기호의 기본기호는 일반적으로 목록의 기본기입의 표목(기입어)을 대상으로 삼아 매긴다. 따라서 그 대상에는 개인저자명 뿐만 아니라 단체저자명, 판할구명(국명, 지명), 표제(서명)등이 포함되는 수가 있다.

1.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저작은 예외적으로 그 저작의 대상이 된 主題(subject)에 의해서 매긴다.

1. 21 개인전기(各傳)는 被傳者를 대상으로 해서 매긴다. (예시는 三다2.2 참조)

1. 22 어떤 특정한 姓氏의 族譜나 가족의 역사도 그의 성씨나 가족명을 대상으로 기본기호를 매긴다. 이 때 그 대상이 本貫과 姓氏의 순위로 복합된 것일 경우에는, 이를 “姓·本貫”的 순위로 도치한 형식을 기호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시는 三다2.2 참조)

1. 23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 또는 저작에 관한 批評·註釋·梗概·解說·解題·自習書·指導書·辭典索引·書目등의 저작은 그의 대상이 된 인물이나 단체 즉 被評者, 被解說者, 被解題者, 自習者, 指導者 또는 원저작의 기본기입에 의해서 저자기호를 매긴다. (예시는 三다2.3 참조)

1. 24 補遺·追錄·續篇 및 改正增補版도 그의 저자나 기본기입과는 상관없이 그의 正篇 또는 初版에 대한 기본기입에 의하여 저자기호를 매긴다. (예시는 三다2.8 참조)

1. 3 다만 위의 1. 2항과 같이 주제에 의하여 기본기호를 매기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류표상에 이미 그 항목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저작과 마찬가지로 목록의 기본기입에 의하여 저자기호화 한다.

예를 들어 「金桂淑著 헤이겔研究」를 분류할 때, KDC(도협)의 “165.4 헤이겔”이나 DDC 14판의 “193.5 Hegel”과 같이 그 특정한 주제가 분류항목으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저작의 주제인 “헤겔”(표기법에 따라서는 헤이겔 또는 Hegel)을 대상으로 저자기호를 매기지 아니하고, 목록의 기본기입인 “길제숙”을 대상으로 저자기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헤겔철학의 항목이 DDC 15판·16판·17판의 경우와 같이 분류표상에 특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193 Modern Philosophy of Germany and Austria”와 같이 그 상위항목만 있을 경우에는 “헤겔”을 대상으로 저자기호를 매겨 구분해 준다. 이와 對比되는 예로, 「세로 해리스著 케인즈經濟學入門」(원서명 : John Marynard Keynes, economist and policy maker)의 경우는 KDC 엔 “케인즈”에 대한 항목이 특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320.185 新古典學派”와 같이 그것을 포함하는 상위항목만 나와 있으므로, 동 저작의 기본기입인 “해리스”(표목문자에 따라서는 “Harris”)에 의하여 저자기호를 매기지 아니하고 그 주제인 “케인즈”(표목문자에 따라서는 “Keynes”)를 대상으로 저자기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DDC 17판에 의하여 분류할 경우에는, 동표상에 “330.156 Keynesianism”과 같이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항목이 특정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저자기호를 “케인즈”에 의해서 매기지 아니하고 “해리스”를 대상으로 매기는 것이다.

2. 기본기호의 조작과 표의 사용법

2. 1 기본기호는 문자기호와 숫자기호로 이룬다. 문자기호는 대상이 (1항에 의해 선정한 기입어)의 첫자(음절)를 그대로 따고, 숫자기호는 그 대상의 둘째자(음절)를 자음(초성)과 모음(중성)으로 分析하여 각기 표에 의하여 기호화한 다음, 이를 合成하여 기본기호로 삼는다. 받침(종성자음)은 기호화하지 않는다.

(이하 각 예시의 기호화는 제5표에 의한 것이며 그 적힌 순차로 들어온 것을 전제해서 기호를 매긴 것임)

예 : 김도희

김 25

김종길

김 75

한국도서관협회

한 16

조선일보

조 54

2. 2 표상에 대표모음으로 나와 있지 않은 모음을 모음의 순위를 ㅏ ㅓ ㅗ ㅜ ㅡ ㅣ로 보아 그 위에 있는 대표모음에 대한 기호를 매긴다.

예 : 김규식

김 16

조 향

조 93

2. 3 자음기호가 표상 두자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은 우선 자음만을 기호화하고 모음의 기호화는, 원칙적으로, 일단 보류한다.

예 : 정필도

정 89

이노우에

이 19

2. 4 문자기호로 제기한 글자가 기본기호를 이루는 면에서 그 밀도가 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것에

에 대한 기호화는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예상 되는 첫음절로서는 우선 우리나라 10大姓 (음으로 이와 똑같은 글자도 포함)을 들 수 있다.¹⁰⁾ 1930년도 국세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 10大姓의 순차는 아래와 같다.¹¹⁾

김(金) 이(李) 박(朴) 최(崔) 정(鄭)
조(趙) 강(姜) 장(張) 한(韓) 윤(尹)

그러나 제5·6·8 표 중의 어느 한 표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숫자기호화할 때 “ㄱ”에 한해서는 어느 경우이고 모음기호까지를 동시에 매겨주는 것이 좋다.

“ㄱ”에 대해서 숫자기호 “1”로 기본기호의 구성이 끝나면 그보다 자모순으로 앞서는 기입어가 나중에 들어왔을 경우 완전한 자모순을 유지하는 기호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2.9 및 2.10도 참조)

2.5 기본기호를 이루는 면에서 그 밀도가, 예로 10大姓의 음절의 경우와 같이, 그리 심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음절을 문자기호로 갖는 기본기호는, 들께자의 기호화에 있어서 모음기호를 일단 보류할 뿐만 아니라 자음의 기호화에 있어서도 표상 두자리 숫자를 갖는 것은 우선 한자리로 끊어 쓰는 것이 좋다.

예 : 휘문중학교	휘 3
휘트먼	휘 8
그러나	
정필도	정 89
이노우에	이 19

2.6 된소리를 예소리와 동일시해서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에서는 문자기호의 採記에 있어 된소리를 예소리로 바꾸어 표시한다.

예 : 까치 보호회 가8
빨간장미회 빨12

2.7 문자기호중 “이”자 다음에는 카터기호(LC기호
도 포함)와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박자를 띄 다음 (A)

10) 대도서관에서는, 그 범위를 보통항목에서는 10大姓으로 잡되 큰項目(소설, 시, 수필, 및 전기도 포함)에서는 20大姓내지 30大姓까지 확장할 수 있다. 물론 그범위의 단축과 확장의 한도는 그 도서관 나름으로 확정 할 일이다. 어떻게 그 범위를 잡든 간에 이를 자모순으로 고쳐 배열하여 표의 餘白에 쳐어 놓는 것이 좋다.

11) 朝鮮總督府, 朝鮮の姓, 京城, 昭和19 [1934], p.57. 1960년 국세조사서에도 우리나라 성씨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에 의한 발표는 없으나, 1968년 6월 8일附 각신문 지상에 기사로 일제히 보도된 바 있다. 동보도에 의한 우리나라 (南韓)의 인구통계 순위에 의한 10대성은 1930년도 조사(南北韓)와는 약간 달리, 金, 李, 朴, 崔, 鄭, 姜, 趙, 尹, 張, 林의 차례로 나타나 있다(1968년 6월 8일부의 東亞日報 p.7, 朝鮮日報 p.3, 한국일보 p.3). 이보다 앞서 1968년 3월 5일 일부신문에 성씨별 인구통계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의 10대성은 金, 李, 朴, 崔, 鄭, 趙, 尹, 姜, 張, 申으로 되어 있다(한국일보 1968년 3월 5일 p. 2). 전자(1968년 6월 8일부)의 기사 내용이 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맞는 것으로 믿어진다.

참고로 30大姓까지의 순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金, 李, 朴, 崔, 鄭, 趙, 姜, 張, 韓, 尹, 吳, 林, 申, 安, 宋, 徐, 黃, 洪, 全, 權, 柳, 高, 文, 白, 梁, 孫, 劉, 許, 裴, 曹(1930년조사).

12) 이 문자기호와 숫자기호간에 끌마를 치는 용법은, 목록기입(표목)상 한국·중국·일본 인명의 성명간에 끌마를 찍거나 띄어쓰기를 하여 단어 순으로 배열하는 도서관에서도, 외자 성(한음절로 이루어진 성)을 가진 기입에 대하여 적용해 써야 목록과 일치된 배열을 기할 수 있다(출고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저자기호표의 연구" p. 28 및 p. 25참조).

대하여는 둘째자(음절)의 자음만을 기호화하고, 모음만), 또는 아포스트로퍼(B안), 또는 대쉬(C안) 부호를 친 다음 숫자기호를 합성하는 것이 좋다.

A안 B안 C안

예 : 이재철 이 73 이'73 이-73

기호의 多義性을 예방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용법은 “이”자외에도 ㅔ, 崴, 뇌, 嵬, 嵬와 같은 모음을 갖는 문자기호의 경우에도 그 중모음(형태상의 중모음)의 마지막 요소인 “띤이”(1)가 숫자기호 “1”과 혼동될 것을 막기 위하여 적용해 쓸 수 있다.

2.8 대상어의 기입요소(entry element)가 의자(한 음절)로 이루어진 것은 문자기호 다음에 콤마를 친 다음 부차적 요소(secondary element)의 기호화한 것을 합성한다.¹²⁾

예 : 맨, 마가레트 맨, 3
 맨, 헨리 맨, 9

이 때 저자기호의 배열은 상기 예에서와 같이, 룸마 있는 것을 룸마 없이 결합된 것보다 앞세워 배열한다.
(따라2 참조)

2.9 같은 분류항목내에서 다른 대상으로 등일한 기 본기호를 갖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표에 의해 매진 기호 다음에 임의의 숫자를 하나 또는 그 이상 덧붙여 이를 전개한다. 임의의 숫자를 덧붙일 때 주의 할 일은 가급적 한자리만의 숫자 추가로서 자모순으로 개별될 수 있게, 우선 “복판 숫자”격인 “5”부터 매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한번호 이상의 번호를 견너 뛰게하여 기호 삽입의 여지를 남겨 두어가며 매기고, “1”과 “9”의 숫자는 가급적 끝까지 보류하여 두었다가 막다른 곳에서 사용도록 하는 일이다.

예 : 김 도희	김 25
김 동리	김 255
김 동진	김 257

임의로이 붙이는 숫자중 초두에 “복판숫자”를 매기지 아니하고, 처음서부터 “1”이나 “2”를 매기는 것이 좋은 것은, 동명이인이나 동명이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입어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예 : 김윤식(金允植)	김 66
김윤식(金潤植)	김 661
김기석(金基錫)	1905— 김 18
김기석(金基錫)	1926— 김 181
세계문학전집(을유문화사)	세 14 또는 세' 14
세계문학전집(정음사)	세 142 또는 세' 142
한국도서관학회	한 16
한국도서관협회	한 161

2.10 제일먼저 들어온 것보다도 자모순으로 앞서는 대상어가 들어왔을 때, 제5·6·8표의 “아이디얼형”표를 채용한 도서관에서는 그 마지막 숫자기호의 바로 위의 모음기호를 차용하여 매기되 이에 “7”보다 하위의 임의 숫자하나를 덧붙인다. 그러나 그 마지막 모음 기호가 “ㅏ”에 대한 “2”일 경우에는 그 보다 앞번호인 “1”를 취하여 “1”로 그치지 말고 언제나 이에 임의의 숫자를 상기 2.9항의 요령으로 덧붙여 매기는 것이 좋다.

예 : 김도희	김 25
김도기	김 248
김장수	김 72
김자립	김 715

그러나 제1·2표, 및 제3·4·7표의 실용형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일먼저 들어온 것보다 자모순으로 앞서는 대상어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제일먼저 들어온 것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표상의 모음기호를 고수하여 상기 “2.9항”的 요령으로 개별한다. 따라서 이시스ーム에서는 자연히 업격한 의미의 자모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하기 예의 기호화는 제3표에 의함)

예 : 김도희	김 25
김도기	김 253
김장수	김 71
김자립	김 715

2.11 위와 같은 임의의 숫자 추가에 의해 번호의 앞뒤가 꽈 체워진 연후 또다시 그 사이에 끼는 대상어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또 한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첨가하여 구분한다.

예 : 김동리	김 255
김동길	김 254
김동래	김 2545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무한히 전개해 나간다.

2.12 모음까지를 기호화하여 합성하여도 대상어는 다른데 같은 번호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의 개별을 상

기 2.9항부터 2.11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하는 것이 원칙이나, 데뜸 한자리를 늘려 개별하려고 하기 전에 같은 자리수(제단)내에서 모음의 합성에도 불구하고 빈번호(유류번호)로 남는 것은 없나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그런 빈번호가 있을 경우 이를 그 임의의 숫자로 활용하여 쓰는 것이 좋다.

그런 예로, 아이디얼형표(제5·6·8표)를 채용한 도서관에서는, 제5표는 ㄴ·ㄹ·ㅁ·ㅂ·ㅅ·ㅇ·ㅎ, 제6표는 ㄴ·ㄹ·ㅁ·ㅇ·ㅎ, 제8표는 ㅁ·ㅂ·ㅅ·ㅇ에 각각 모음기호를 합성할 경우, 그표에 모음기호는 “8”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9”란 번호는 빈번호로 남게 되는데, 이를 임의의 숫자로 활용해 쓰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예 : 조미자	조 38
조민철	조 39
조민제	조 385

또한 예로, 한국어와 일본어(인명포함)에 대한 기입어로 거의 쓰이지 않는 음절에 대한 번호—예 : 아이디얼형들에 의한 28(더), 34(여), 37(느), 48(브); 실용형표에 의한 24(여), 26(파), 29(더), 33(여), 38(느), 46(봐), 48(브), 54(셔), 56(솨)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번호를 그임의의 숫자로 가급적 활용하여 쓰는 것이 기호매김의 요령이다.

아이디얼형표	실용형표
예 : 조무남	조 36
조문하	조 37
조문수	조 365

2.13 일본인명을 한국음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일본음으로 읽어 표기하는 도서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숫자기호화의 대상을 둘째자의 자음에 한하여 매기고, 同番號異記入이 나왔을 경우에는 임의의 숫자를 첨가하여 개별하는 것이 좋다. (「일본현대작가기호표」 참조)

예 : 야마까따	야 3
야마모또 시게루	야 35
야마까와	야 33
야마모또 아끼라	야 37

2.14 대상어(기입어)의 첫째자(음절)가 아래와 같은 반침을 가진 것은 둘째자에 대한 기호를 표에 의해 매기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임의의 숫자로 조절하여 개별해 나가는 것이 좋다.

ㄷ, ㅅ, ㅈ, ㅊ, ㅋ, ㅌ, ㅍ, ㅎ의 외반침과
ㄲ, ㅆ, ㅉ, ㄸ, ㅃ, ㅆ, ㅉ 등의 쌍반침

예 : 샛별희	샛 5
샛바람희	샛 3
젊은세대를 위한 교양전집	젊 5
젊은이를 위한 사상전집	젊 7

(차호에 계속)